

국내외 기술정보

일본의 식품수입 현황과 대응과제

최 태 등
식품경제연구부

일본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가장 인접해 있고 세계 제일의 식품수입국임을 감안할 때 일본의 식품수입실태를 분석해봄으로써 식품 수출의 새로운 활로를 찾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거대한 일본의 식품수입시장에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여러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해결에는 우선 현실 인식이 선결요건이므로 이에 일본의 식품수입현황을 '96년도 수입실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의 대응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1. 원료식품 수입현황

'96년 한해동안 일본의 원료식품수입총액은 3,370,754백만엔(29,058백만불, 1불=116엔)이었으며 이 가운데 농산물은 1,564,519백만엔(46.4%), 축산물이 27,931백만엔(0.8%), 임산물 111,565백만엔(3.3%), 그리고 수산물 1,666,739백만엔(49.4%)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총 수입액의 경우 '95년에 비해 19.7%가 증가한

것이며 '95~'96년간 증가율 측면에서 보면 농산물이 30.9%로 비교적 높은 반면 축산물, 임산물 및 수산물은 각각 15.0%, 10.5%, 11.4%의 증가율에 그쳤다.

금액면에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물량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축산물을 제외하면 총 43,461천톤으로 '95년의 총 43,555천톤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

세부식품류별로 볼 때 농산물중에서는 곡류, 서류, 두류 등의 수입액 증가율이 각각 49.1%, 39.6%, 34.6%로 매우 높았고 과일류와 채소류는 각각 10.6%, 14.1%에 불과했다.

임산물의 경우 도토리 37.5%, 산채류 20.5%, 견과류 17.4%로 나타났으며 버섯류는 -5.0%로 감소하였다. 또한 수산물 가운데서는 연체동물과 어류가 각각 17.9%, 16.8%의 증가율로 비교적 높았고 갑각류와 수생동물류는 2.0%, 10.2%의 증가에 그쳤다.

물량측면에서 보면 농산물중에 서류, 두류 등이 다소 증가한 반면 곡류, 과일류, 채소류, 재배버섯류는 오히려 감소하였고 채유종실류, 기타곡실류 등은 정체상태였다. 축산물은 모두 약간씩 물량증

가를 나타냈고 임산물은 산채류를 제외하고 모두 약간씩의 물량증가를 보였으나 대체로 전년대비 정체상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표 1. 일본의 원료식품 수입현황

(단위 : 천톤, 백만엔)

구 분	1995		1996		'95/'96 금 액 증가율(%)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원료농산물	40,584	1,195,516	40,443	1,564,519	30.9
- 곡류	28,042	452,584	27,761	674,933	49.1
- 서류	294	32,611	376	45,512	39.6
- 두류	5,683	163,982	5,948	220,638	34.6
- 채유종실	2,508	95,327	2,525	116,070	21.8
- 과일류	2,303	235,414	2,188	260,357	10.6
- 기타 곡실류	142	18,064	146	20,846	15.4
- 채소류	1,583	190,345	1,472	217,185	14.1
- 버섯류	29	7,189	27	8,978	24.9
원료축산물	-	24,284	-	27,931	15.0
- 포유가축류(천두)	15	20,854	20	23,482	12.6
- 가금류(천수)	1,600	1,183	1,637	1,353	14.4
- 기타산동물	0.2	2,247	0.3	3,096	37.8
원료임산물	279	101,080	274	111,565	10.4
- 산채류	140	22,952	144	27,657	20.5
- 버섯류	37	34,735	34	32,982	-5.0
- 견과류	102	43,385	96	50,915	17.4
- 도토리	0.0	8	0.0	11	37.5
원료수산물	2,692	1,495,655	2,744	1,666,739	11.4
- 어류	1,801	730,627	1,827	853,257	16.8
- 갑각류	464	537,301	470	548,210	2.0
- 연체동물	401	186,432	418	219,765	17.9
- 수생동물	26	41,295	29	45,507	10.2
원료식품계	43,555	2,816,535	43,461	3,370,754	19.7

*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96년도 일본의 농수산물 수입실적」, 1997. 7

2. 가공식품 수입현황

1996년도 가공식품 수입액은 총 2,135,899백만엔(18,413백만불)이었으며 전체 식품수입액에서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38.8%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수입액증가율이 가공식품의 경우 전반적으로 11.3%에 불과하여 원료식품의 19.7%에 비하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량면에서는 주류 및 음료류의 수입물량 대폭 감소로 인하여 17.3%가 감소한 실적을 보였다.

가공식품류별로 볼 때 축산물가공식품(육류 포함)이 1,172,907백만엔으로 전체의 54.9%를 차지했으며 농산물가공식품은 809,210백만엔에 37.9%, 수산물가공식품은 153,782백만엔에 7.2%를 각각 차지했다. 전년대비 수입액 증가율은 축산물가공식품류가 13.5%로 비교적 높았으며 농산물가공식품과 수산물가공식품은 각각 9.0%, 6.7%로 낮게 나타났다.

개별품목별로 보면 꿀(59.8%), 난류(41.8%), 빵류 제조용 소재(40.2%), 기타 조제농산물(39.1%), 가금육류(37.4%), 코코아류(37.1%), 면류(35.9%), 기타 수산부산물(34.4%), 간장 등 소스류(30.5%) 등의 수입액 증가가 30%이상으로 높았고 차류(26.8%), 단백질계 물질(24.3%), 식물성유지(19.6%), 동물성유지(18.2%), 한천(18.2%), 낙농품(17.0%) 등도 20%내외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그밖에는 10%내외이거나 그 이하로 낮은 수입액증가율을 보였으며 특히 효모류, 향신료, 커피류, 음료, 기타육류 등에 있어서는 수입액이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물량측면에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주류가 전년대비 8.8%, 음료는 33.3% 각각 감소하여 전반적인 물량감소를 주도하였으며 그 밖에 식물성유지, 유지가공품, 식물성액즙, 효모류, 지방성물질, 당류, 과자류, 기타육류, 낙농품, 단백질계물질, 해조류가공품, 수산부산물 등의 수입물량도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한 실적을 보여주었다.

표 2. 일본의 가공식품 수입현황

(단위 : 천톤, 백만엔)

구 분	1995		1996		'95/'96 금 액 증가율(%)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농산물가공식품	1,520,338	742,484	1,257,037	809,210	9.0
- 전분	144	5,897	147	6,524	10.6
- 식물성유지	622	60,777	605	72,684	19.6
- 유지가공품	6	1,091	4	1,153	5.7
- 식물성 액즙	36	25,407	34	29,037	14.3
- 단백질계물질	294	25,619	296	31,855	24.3
- 향류제조용소재	44	5,647	47	7,915	40.2
- 효모류	6	4,618	5	3,955	-14.4
- 소스류	37	8,419	42	10,984	30.5
- 향신료	7	3,006	7	2,969	-1.2
- 지방성물질	152	18,891	11	1,891	-90.0
- 커피류	325	118,582	354	116,575	-1.7
- 코코아류	191	42,764	233	58,616	37.1
- 차류	45	17,208	49	21,821	26.8
- 인삼류	1	3,070	1	3,467	12.9
- 주류(천 l)	984,272	203,412	897,937	213,708	5.1
- 당류	2,172	65,193	1,957	65,527	0.5
- 음료(천 l)	531,371	31,505	354,614	26,864	-14.7
- 과자류	61	20,984	58	22,203	5.8
- 면류	83	11,258	92	15,300	35.9
- 기타조제농산물	469	69,136	544	96,162	39.1
축산물가공식품	2,760	1,033,148	2,852	1,172,907	13.5
- 포유가축육류	1,522	754,680	1,596	838,463	11.1
- 가금육류	551	124,030	626	170,401	37.4
- 양서류육류	0.0	18	0.0	27	50
- 기타육류	95	43,488	51	31,980	-26.5
- 꿀	39	3,854	42	6,160	59.8
- 난류	21	4,424	22	6,275	41.8
- 동물성유지	98	5,228	105	6,181	18.2
- 낙농품	388	74,857	367	87,606	17.0
- 단백질계물질	46	22,569	43	25,814	14.4
수산물가공식품	177	144,134	168	153,782	6.7
- 해조류가공품	64	16,536	62	17,419	5.3
- 수산부산물	109	124,259	102	132,329	6.5
- 한천	1	2,801	1	3,311	18.2
- 기타수산부산물	3	538	3	723	34.4
가공식품계	1,523,275	1,919,766	1,260,057	2,135,899	11.3
식품 총계	1,568,445	4,736,301	1,305,175	5,506,653	16.3

* 자료 : 상계서

3. 식품류별 수입대상국

3.1 곡류

곡류의 주수입대상국은 미국, 호주, 캐나다, 남아공, 독일, 태국, 아르헨티나, 영국, 중국, 프랑스 등이며 미국이 '96년 현재 전체수입액의 68.0%로 단연 선두였고 우리나라는 극히 미미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었다.

3.2 서류

곡류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전체수입액의 69.6%를 차지하여 단연 선두이며 그 밖에 중국, 캐나다, 태국, 네덜란드, 호주, 벨기에, 베트남, 독일, 필리핀 등이 10대 수입대상국들이다. 우리나라는 2,900만엔 수출로 0.1%에도 못미치는 실적이다.

3.3 두류

두류의 경우도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전체의 66.1%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그 밖에 10대 수입대상국에는 중국, 브라질, 파라과이, 대만, 캐나다, 태국, 뉴질랜드, 볼리비아, 버마 등이 포함되고 있다. 한국은 2억엔 수출실적으로 전체의 0.1%에 그치고 있다.

3.4 채유종실

캐나다가 전체의 56.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중국, 호주, 미국, 수단, 프랑스, 파푸아뉴기니, 탄자니아, 남아공, 버마 등이 10대 수입대상국들이다. 한국은 175백만엔 수출로 전체의 0.15%에 불과하였다.

3.5 과실류

미국(37.1%)과 필리핀(16.3%) 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전체의 53.4%로 절반을 넘고 있으며 그밖에 중국, 브라질, 뉴질랜드, 대만, 에콰도르, 태국, 이스라엘, 남아공 등이 주수입대상국이며 우리나라는 248백만엔 수출에 전체의 0.1%에 지나지 않았다.

3.6 채소류

중국(32.9%)과 미국(26.9%)에 이어 뉴질랜드, 태국, 멕시코, 호주, 한국, 대만, 이태리, 터키 등이 주수입대상국들이다. 한국은 6,984백만엔을 수출 전체의 3.2%를 차지하여 7위를 기록하였다.

3.7 재배버섯류

중국이 전체의 77.3%를 차지하여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밖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브라질, 대만, 프랑스, 이태리, 미국, 캐나다, 등이 10대 수입대상국들이었다. 한국은 13백만엔 수출로 전체의 0.1%를 겨우 넘고 있었다.

3.8 전분

태국(38.5%)과 네덜란드(35.6%)가 전체수입액의 74.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밖에는 인도네시아, 덴마크, 말레이시아, 중국, 뉴질랜드, 한국, 독일, 캐나다가 10대 수입국이었으며 우리나라는 48백만엔 수출로 전체의 0.7%를 차지하여 제8위의 수입대상국으로 나타났다.

3.9 식물성 유지

말레이시아(38.4%), 미국(19.2%)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의 57.5%를 차지했고 그밖에 이태리, 스페인, 인도, 중국, 싱가포르, 필리핀, 브라질, 프랑스 등이 주요 수입대상국이며 한국은 40백만엔 수출로 전체의 0.05%에 불과했다.

3.10 유지가공품

미국(36.3%)과 영국(18.4%)이 전체의 54.7%를 차지했으며 네덜란드, 싱가포르, 프랑스, 독일, 브라질, 캐나다, 뉴질랜드, 이태리 등이 10대 수입대상국에 포함되었다. 우리나라는 14백만엔 수출로 전체의 1.2%를 차지했다.

3.11 식물성 액즙

미국(29.4%)과 한국(19.8%) 및 덴마크(10.9%) 등이 주수입대상국이며 그 밖에 프랑스,

인도, 독일, 태국, 중국, 대만, 스페인 등이 10대 수입대상국에 포함되고 있다.

3.12 빵류 제조용 소재

미국(30.8%)과 호주(24.4%)가 주수입대상국이며 그밖에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 한국, 프랑스, 대만, 독일, 벨기에 등이 10대 수입국들이었다. 우리나라는 477백만엔 수출로 전체의 6.0%를 차지하여 제6위의 수입대상국으로 나타났다.

3.13 효모류

대만으로부터의 수입액이 55.7%를 차지하였고 그밖에 프랑스,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순으로 많았다. 한국은 21백만엔 수출로 전체의 0.5%에 불과했다.

3.14 소스류

미국(25.6%), 태국(19.3%), 뉴질랜드(12.6%), 홍콩(11.9%) 등이 주수입대상국들이며 그밖에 10대 수입국에는 프랑스, 호주, 이태리, 한국, 중국, 스위스 등이 포함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348백만엔 수출로 전체의 3.2%를 차지하여 제8위의 수입대상국으로 나타났다.

3.15 향신료

대만(27.4%), 태국(23.3%), 한국(12.9%), 중국(11.9%), 인도(9.5%) 등으로 부터의 수입이 많았고 터키, 스페인, 미국, 독일, 싱가포르 등도 10대 수입대상국들이었다.

3.16 지방성 물질

미국(47.5%)과 인도네시아(25.3%)에 이어 대만, 한국, 말레이시아, 브라질, 중국, 아르헨티나, 싱가포르, 태국 등이 10대 수입국들이며 우리나라는 112백만엔 수출로 전체의 5.9%를 차지하여 제4위의 수입대상국으로 나타났다.

3.17 차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전체의 44.3%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스리랑카(13.5%), 영국(10.5%), 인도(9.8%) 등과 프랑스, 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브라질이 10대 수입국들이었다. 한국은 3백만엔의 극히 미미한 수출실적을 보였다.

3.18 인삼류

중국으로부터 82.0%를 수입하고 있으며 한국은 597백만엔 수출로 전체의 17.2%를 차지하여 제2위의 수입대상국이 되고 있지만 중국에 비하면 1/5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그밖에 북한, 홍콩, 미국, 대만, 캐나다, 브라질로부터 소규모 수입되고 있었다.

3.19 주류

프랑스(41.5%), 영국(14.6%), 미국(14.1%) 등이 주수입대상국이며 이태리, 독일, 한국, 브라질, 중국, 태국, 호주 등도 10대 수입대상국에 포함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5,821백만엔 수출로 전체의 2.7%를 차지하여 제6위의 수입대상국으로 나타났다.

3.20 당류

태국(42.3%)과 호주(31.2%)가 주요 수입대상국이며 그밖에 남아공, 쿠바, 피지, 미국, 인도네시아, 캐나다, 중국, 한국 등이 10대 수입대상국들이다. 우리나라는 198백만엔 수출로 전체의 0.3%를 차지하여 제10위에 랭크되고 있다.

3.21 음료

미국(50.5%)과 프랑스(29.2%)가 주수입대상국이며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이 전체의 3.0%를 차지하여 제4위의 수출국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벨기에, 호주, 캐나다, 홍콩, 남아공, 중국 등이 10대 수입대상국에 포함되고 있다.

3.22 과자류

미국(23.3%), 태국(13.6%), 중국(7.3%), 네

덜란드(5.5%), 프랑스(4.5%), 한국(4.4%), 덴마크(4.1%), 호주(4.0%), 영국(3.8%), 스페인(3.8%) 등이 10대 수입대상국들이며 미국과 태국을 제외하면 국가별 수입액이 비슷한 수준으로 경쟁이 치열한 것을 알 수 있다.

3.23 면류

이태리(52.3%), 중국(22.0%), 태국(7.0%) 등이 주수입대상국들이며 대만, 한국, 미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 홍콩 등도 10대 수입대상국에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468백만엔 수출로 전체의 3.1%를 차지하여 제5위의 수출국이 되고 있다.

3.24 기타 조제농산품

미국(32.3%), 호주(11.7%), 싱가포르(11.1%) 등이 주수입대상국들이며 한국은 8,207백만엔 수출로 전체의 8.5%를 차지하여 제4위의 수입대상국이 되고 있다. 그밖에 태국, 뉴질랜드, 벨기에, 프랑스, 중국, 네덜란드 등이 10대 수입국에 포함된다.

3.25 포유가축류

미국이 전체수입액의 72.5%를 차지하고 있고 그밖에 영국, 아일랜드, 호주, 캐나다, 프랑스, 벨기에, 뉴질랜드, 독일, 스위스 등이 10대 수입대상국들이다. 우리나라는 7백만엔 수출로 전체의 0.03%의 극히 미미한 실적이다.

3.26 포유가축육류

쇠고기, 돼지고기가 주를 이루는 육류는 미국이 전체의 42.3%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대만 21.0%, 호주 13.8% 등의 순으로 많았다. 그밖에 덴마크, 캐나다, 한국, 뉴질랜드, 멕시코, 영국, 네덜란드 등이 10대 수입대상국에 포함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2,896백만엔 수출로 전체의 2.7%를 차지하여 제6위의 수입대상국으로 나타났다.

3.27 가금육류

중국(37.5%), 태국(25.8%), 미국(16.6%), 브

라질(16.4%) 등이 주수입대상국이며 그밖에 대만, 프랑스, 헝가리, 이스라엘,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이 10대 수입대상국에 포함된다. 한국은 83백만엔 수출로 전체의 0.05%에 불과하였다.

3.28 동물성 유지

캐나다(43.6%)와 미국(40.1%)으로 부터의 수입이 전체의 83.7%를 차지하고 있고 그밖에 호주, 네덜란드, 대만, 뉴질랜드, 중국, 영국, 노르웨이, 싱가포르 등이 10대국에 포함되고 있다. 한국은 3백만엔 수출로 전체의 0.05%에 불과한 실적이었다.

3.29 낙농품

뉴질랜드(23.5%), 호주(22.1%), 미국(9.0%), 네덜란드(8.6%), 덴마크(7.1%), 독일(5.0%), 프랑스(4.9%), 우크라이나(3.2%), 노르웨이(2.8%), 리투아니아(2.3%) 등이 10대 수입대상국들로서 뉴질랜드와 호주를 제외하고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고르게 수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0 난류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전체의 71.0%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밖에 태국, 중국, 캐나다, 브라질, 덴마크, 대만, 스웨덴, 인도, 네덜란드 등이 10대 수입대상국에 포함되고 있다.

3.31 산채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86.6%로 단연 많았고 그밖에 대만(8.7%), 태국(3.6%), 러시아, 베트남, 홍콩 등에서 소규모 수입되고 있다.

3.32 임산버섯류

중국이 전체수입액의 72.8%를 차지했으며 한국은 3,190백만엔 수출로 전체의 9.7%를 차지하여 제2위의 수입대상국이 되고 있다. 그밖에 캐나다(8.2%), 북한(3.2%), 미국, 모로코, 프랑스, 멕시코, 터키, 이태리 등이 10대 수입대상국에 포함된다.

3.33 견과류

밤과 아몬드가 주종을 이루는 견과류 수입은 미국(38.8%), 중국(25.9%), 한국(24.1%) 등이 주수입대상국이며 그밖에 이란, 호주, 케냐, 프랑스, 터키, 이태리 등이 10대 수입대상국들이다.

3.34 어류

중국(17.2%), 미국(16.9%), 대만(12.3%) 등이 각각 연간 1,000억엔이 넘는 수출고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67,062백만엔 수출로 전체의 7.9%를 차지하여 제4위의 수입대상국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칠레,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아이슬랜드 등도 10대 수입대상국에 포함된다.

3.35 갑각류

새우와 게가 주종을 이루는 갑각류는 인도네시아(16.7%), 러시아(14.2%), 태국(13.2%), 인도(11.3%) 등이 주수입국이며 캐나다, 중국, 호주, 베트남, 미국, 필리핀 등도 10대 수입대상국에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7,058백만엔 수출로 전체의 1.3%를 차지했다.

3.36 연체동물

오징어, 문어 등 연체동물의 경우 모로코(18.3%), 중국(16.1%), 한국(13.8%), 태국(12.1%) 등이 주수입대상국이며 그밖에 모리타니아, 베트남, 카나리아, 호주, 아르헨티나, 인도 등이 10대 수입대상국에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30,283백만엔을 수출하여 제3위를 차지하고 있다.

3.37 수생동물

성게, 해파리 등 수생동물은 미국(40.9%), 중국(13.6%), 칠레(10.3%), 한국(9.8%), 캐나다(7.6%) 등이 주수입대상국이며 북한, 러시아, 버마, 태국, 인도네시아 등도 10대 수입대상국들이다. 우리나라는 4,478백만엔 수출로 제4위의 수입대상국이 되고 있다.

3.38 해조류

미역, 툇 등 해조류는 한국이 전체의 57.5%를 차지하여 선두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26.1%), 칠레(5.8%) 등과 인도네시아, 미국, 모로코, 노르웨이, 대만, 필리핀, 태국 등이 10대 수입대상국에 포함되고 있다.

3.39 수산부산물

어란 등 수산부산물은 미국(28.9%), 러시아(21.3%), 캐나다(17.8%), 중국(12.2%), 한국(9.8%) 등이 주수입대상국이며 한국은 12,977백만엔 수출로 제5위의 수입대상국으로 나타났다.

3.40 한천

칠레(35.8%), 한국(27.4%), 모로코(10.1%), 중국(7.5%) 등이 주수입대상국이며 우리나라는 906백만엔 수출로 제2위의 수입대상국이 되고 있다. 그밖에 포르투갈, 스페인, 아르헨티나, 미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이 10대 수입대상국에 포함된다.

4. 대응과제

1) 전반적으로 원료식품이나 가공식품을 막론하고 물량면에서 수입이 감소한 편이지만 수입 금액은 다소 증가한 점을 고려해볼 때 고품질의 식품수입 경향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의 수출전략도 품질위주의 고가품 수출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본다.

- 2) 원료식품 가운데서 거리상의 인접성이라는 잇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신선식품류를 중심으로 품질이 우수하여 경쟁력이 높은 식품을 선정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할 것이다.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등이 이에 속할 것이며 돈육의 경우에도 주수입국 대만의 전국적 구제역 발생에 따른 대일본 수출중단 기회를 우리가 백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3) 가공식품류의 경우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수출의 중심에 있었으나 가격이 저렴한 중국으로 수입선을 돌리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일본 소비자의 기호에 맞고 품질도 우수하며 가격수준도 적절하게 하는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 4) 김치, 장류 등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류는 일본내 소비층 저변확대를 위하여 홍보를 더욱 강화해나가고 자체 유통망을 확보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본다.
- 5) 인삼류, 버섯류 등 우리 상품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품목들도 그 우수성 구명결과에 대하여 일본내 홍보를 강화하여 제품을 차별화하고 수출품에 대한 정부차원의 품질인증 및 수출확대 노력을 집중적으로 경주해야만 할 것이다.
- 6) 해태(김), 간밤 등 일본 소비자에게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매년 일정물량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의 경우 국내 수출업체간 과당경쟁을 적극적으로 회피하여 수출단가를 스스로 낮추는 일이 없도록 대처해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